

19세기 우리 나라에서 금석학의 발전

목 명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서도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재능있고 지혜로운 문명한 민족입니다.》

(《김일성전집》 제1권 554페이지)

금석학은 금석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시말하여 종이가 아니라 주로는 금속 혹은 돌에 새겨진 문자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의의있는 중요한 사건, 사실을 기록한 금석문자료를 문헌편찬에 널리 리용하였으며 광범히 수집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왔다.

이 글에서는 중세 우리 나라에서 금석문에 대한 연구가 가장 성행하였던 19세기 금석학의 발전면모를 밝혀보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이미 고려시기부터 진행되었으며 17세기이후 더욱 발전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새로운 질적변화를 가져왔다.

17세기 중엽부터 하나의 사상조류로 형성되어 19세기 중엽에 성행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이 시기 금석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9세기 금석학의 발전면모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19세기 우리 나라 금석학은 무엇보다먼저 학문으로서의 체모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하였다.

18세기 이전에는 주로 금석문을 소개인용하거나 자료의 고증에 리용하였으며 탐본자료를 수집하여 서예감상 및 서체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금석문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려시기의 문헌들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개인문집들에는 적지 않은

금석문자료들이 리용되었다. 이것은 조선 봉건왕조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실례로 1530년 리행 등이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도 근 100개에 달하는 금석문이 수록되었다. 한편 역대 명필들의 필적을 모아 새긴 비석인 《집자비》 같은것도 생겨났는데 이것은 금석문글씨의 예술적가치를 높여주었을뿐아니라 서예연구를 심화시킬수 있는 특색있는 자료이기도 하였다.

금석문을 수집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난날에 흔히 리용하던 방법은 탐본(탁본이라고도 함.)이었다. 쇠붙이나 돌에 새긴 글자, 무늬, 그림을 종이에 본떠내는 탐본은 금석문자료를 수집하며 거기에 새겨진 글씨를 감상하기 위하여 많이 리용되었다.

이 시기 금석문과 관련한 저서들에는 탐본자료와 함께 해당 금석문들의 명칭과 보존위치, 작성시기, 찬인(글을 지은 사람), 서인(글씨를 쓴 사람)들이 간단히 첨부되어있다. 이밖에 명필로 알려진 사람들의 필적을 탐본으로 수집하여 따로 편집하는 사업도 널리 벌어졌다. 한편 18세기에 활동한 김광수에 의하여 금석문에 새겨진 고문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18세기이전까지 진행한 금석문연구는 대체로 금석문에 대한 수집정리로서 주로 서예자료로서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학문적으로는 일정한 분야에 편중되었다.

그러나 19세기이후 금석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금석문을 수집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학술적 및 예술적가치도 논의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서는 금석문들을 보다 광범히 수집정리하고 문자, 문장, 서예 등은 물론 기록된 내용을 역사

적으로 깊이 연구하는것이 새로운 경향을 띠고 나타났다.

서유구(1764-1845)가 1825년경에 편찬한 《림원경제십록지》의 《이운지》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금석문들을 소개하면서 예로부터 이름난 비석들의 제목과 소재지, 만들어진 시기와 찬인, 서인을 밝히었으며 해당 비문의 서예적 및 사료적가치를 해설하였다. 한편 리조목(1792-1840)도 자기의 저서 《라려림랑고》에서 신라때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만들어진 금석문들을 소개하고 역사적으로, 서예적으로 고증평가하였다.

19세기 금석학연구는 김정희(1786-1856)에 의하여 한걸음 크게 발전하였다. 그는 종전의 금석문연구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시정하고 역사연구에로의 폭넓은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김정희는 이미 31살에 북한산의 비석을 발견하고 그것이 진흥왕순수비라는것을 밝혀내데 이어 함경남도 황초령에서 발견된 비석의 비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고증하는데 달라붙었다. 비석의 형식과 글자수를 밝히고 문자와 서예에 대하여서도 이론적으로 파고들었으며 특히 비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비석의 건립시기를 고증하고 비문에 반영된 신라의 정치제도, 관료기구와 특징, 불교숭상, 리두식표현 등을 분석하여 비문의 학술적가치를 해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그의 저서 《금석과안록》에 집대성되어있다. 그는 방방곡곡에 널려져있는 주요금석문들을 조사연구하고 옛답본을 수집하여 《해동금석목록》도 편찬하였다. *(《완당선생전집》 권1)

김정희는 오래동안 우리 나라의 금석문을 조사장악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금석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공적을 이룩하였다.

오경석(1831-1879)도 우리 나라 중세말기 금석학연구에 일정한 공적을 남기었다.

그는 1858년 완성한 《삼한금석록》에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금석문들과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 찬인, 서인을 고증하였다. 오경석은 《금대홍설》, 《천죽재차록》 등 저서들에서도 자기의 금석문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이밖에 《해동집고록》, 《해동금석총목》, 《동국금석평》을 비롯한 금석문저서들이 편찬된것도 대체로 19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9세기 우리 나라 금석학은 종전의 금석문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면모를 갖춘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우리 나라 금석학은 다음으로 고증학적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고증학은 옛 문헌이나 물건들이 이루어진 시기, 가치, 내용 등을 일정한 증거에 기초하여 리론적으로 해명하는 학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옛문헌자료를 고증하는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으며 17세기 실학의 발생이후부터 학문적성격을 띠고 본격화되었다.

19세기에 우리 나라의 금석문연구에서도 고증학적연구방법이 널리 리용되었다.

특히 김정희에 의하여 금석문의 작성시기와 문자를 고증하고 금석문에 반영된 사회제도와 문물, 역사와 지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그 사료적가치를 론증하는 연구방법이 도입되었다.

김정희는 1830년에 평양성의 외성 오란 아래에서 나온 글자새긴 성돌을 64년전에 나온 평양성돌과 대비하면서 차이점이 있지만 《소형》이라는 고구려의 관직명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 성돌이 고구려의 금석문이라는것을 확인하였고 성돌이 발견된 장소, 만들어진 시기 등을 고증하였으며 공사방향을 기록한 문장서술방식에 대하여서도 론의하였다.* 뿐만아니라 비문은 전해지고있으나 명칭과 년대가 밝혀져있지 않은

것을 고증하고 비문내용을 해설하였으며 사료적가치를 밝히며 《완당척독》을 비롯한 자기의 저서들에 남겨놓았다.

*《己丑年五月廿八日 始役西向十一里 小兄相夫若牟利造作

此刻出於丙戌 今六十四年 不可復覓 又得一石 於外城烏灘下 與此小異 云西向彼向東也 小兄二字知爲高句麗古蹟無疑 補書於此 此己丑當爲長壽王 後一千三百八十年 金正喜書》(《海東金石苑》卷1, 高句麗故城石刻)

김정희의 제자로서 금석학에 조예가 있었던 리상적(1804-1865)도 신라 진흥왕순수비의 비문을 《삼국사기》의 기록과 대비적으로 분석고증하면서 이 비에 대한 선행학설을 부정하고 자기의 견해를 새롭게 밝히었다.

《우리 나라 금석문에서 가장 옛것은 진흥왕의 순수비이다. 그런데 저술가들이 이 비가 진흥왕 29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즉 중국년대로는 진(陳)나라 광대 2년, 바로 진흥왕이 순수하던 때에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비문의 〈세차무자추팔월순수관경〉이라는 구절을 고증하면서 그렇게 말한것인바 이는 사실을 전도하는 고증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내가 상고하건대 김부식의 〈삼국사〉에는 진흥왕의 이름이 삼맥종이니 왕위에 오르지 37년만에 죽었으며 시호를 진흥이라 하였다. 그리고 비문에는 진흥태왕이라는 말이 있고 오랜 풍화에 비문의 시작과 마감이 완전하지 않아 비록 비를 세운 년월을 증명하지 못하나 진흥왕이 순수할 때에 세운 비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확연하다. 어찌 진흥왕생존시에 왕의 시호가 씌였겠는가. 이 비는 반드시 진지왕이나 진평왕 당시 그 선왕의 순수사적을 기록하여 지방을 순수하던 옛터에다 세운것임이 의심할바 없다.》(《은송당집》 권2 신라 진흥왕순수비 탐본뒤에 씀.)

김정희나 리상적이 진행한 금석문에 대한 고증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부정확

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고증에 의한 학문적연구방법은 금석문일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원문제시로 그치였던 종전의 금석학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발전이었다.

19세기 우리 나라 금석학은 다음으로 국내의 금석학자들과 다른 나라 학자들과의 학술적교류를 통하여 발전하였다.

19세기 문인학자들속에는 금석문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누대를 강화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료의 부족으로 다는 알수 없으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김정희를 비롯하여 그의 동생 김명희, 조인영, 리상적, 오경석 등을 들수 있다.

김명희는 력대 금석문들에 일정한 조예를 가지고 형과 함께 금석문수집을 하였고 조인영(1782-1850)과 그의 조카 조병구도 19세기 전반기에 알려진 금석학자로서 김정희와 학문적연계가 깊었다. 리상적은 중인계충출신으로서 김정희에게서 금석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배웠다.

이들은 대체로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사람들로서 금석학뿐아니라 여러 부문의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다재다능한 학자이며 문인이며 예술가들이기도 하였다.

실례로 김정희는 당시의 대표적인 금석학자일뿐아니라 근대고고학의 싹을 틔워놓은 고고학자였으며 《추사체》를 창조한 이름있는 서예가였고 화가이며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가 남긴 많은 저서와 시문, 서화 작품들이 지금도 전해온다. 리상적은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내외에 명망이 높았던 뛰어난 시인이었으며 김정희에게서 글씨를 배운 유명한 서예가였고 금석학과 고증학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었다. 오경석도 서예에 능하고 산수화에 조예가 깊었으며 금석문에 대한 고증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우리 나라의 금석학자들은 이처럼 여러 부문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금석문연구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을뿐아니라 다른 나라 학자들과도 학술적교류를 활발히 벌리었다.

김정희는 일찌기 24살나던 해인 1809년에 아버지와 함께 사절단의 한 성원으로 청나라에 가서 여러 학자들과 각 분야에 걸치는 학술토론을 진행하여 젊은 학자로서의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 이후에는 학술교류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귀중한 금석문유산을 청나라학계에 널리 소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청나라의 유명한 금석학자인 류희해(1793-1852)가 우리 나라의 금석문들을 모아 편찬한 《해동금석원》(8권 4책)을 비롯하여 《해동금석문자》, 《조선비전문》 등은 다 김정희의 《해동금석목록》에 기초하고있다.

《해동금석원》의 편찬에는 리상적도 크게 관여하였다.

《해동금석원》의 앞머리에는 이 책의 편찬과 그 저자에 대하여 지은 5언고시가 수록되어있는데 그것은 1831년에 조선사람 리혜길이 쓴것이라고 되어있다. 혜길은 리상적의 자이다.

한편 리상적은 자기의 문집인 《은송당집》(권2)에서 《순조31년(1831) 가을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사람인 나의 벗 류연정이 〈해동금석원〉 8권을 편집하여 나한테 보내주었다.》고 하였으며 《연정 류희해에게》라는 시에서는 《그대가 편집한 〈해동금석록〉은 무딘 이 눈으로 정정한적 있었더라》고 하면서 《그가 편집한 〈해동금석록〉은 내가 정정하였다.》고 주석을 달았다. 리상적은 역관으로서 사신행차를 따라 베이징에 12차례나 왕래하는 기회에 중국

의 골동품들을 수집하였고 당시 중국의 저명한 금석학자, 시인들과 교제하였다. 그중에서도 추사와 학문적관계가 깊었던 옹방강과 완원을 비롯하여 당대의 저명한 문인학자들은 물론 류희해와도 친분관계가 두터워 그의 집에까지 다니며 량국의 금석유물과 시문에 대하여 자주 논의하곤 하였다.*1

김정희뿐아니라 1816년에 조인영이, 1823년에는 김정희의 동생 김명희가, 1830년에는 조인영의 조카 조병구가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류희해에게 많은 금석문자료들을 넘겨주고 금석문과 관련한 학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2

*1 《은송당집》 권2

*2 《해동금석원》 해동금석원제사

김정희와 김명희, 조인영, 리상적을 비롯한 금석학자들과 금석문수집가들이 보내준 자료에 근거하여 류희해는 1831년에 고려이전의 금석문 67종을 수록하고 고종한 《해동금석원》을 편찬할수 있었으며 이 책은 우리 나라 금석문을 중국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해동금석원》은 우리 나라 중요금석문의 규모와 발견 및 보존경위, 문자와 문장, 글씨는 물론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있어 우리 나라의 금석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이와 같이 19세기에 진보적인 사상조류에 공감한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학자들은 여러 부문의 학문적지식을 가지고 금석문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나라 금석학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였다.